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4)

네 것, 내 것이 아닌 우리 것을 배운다. 이웃문화협동조합 ●●●

2013.11.18 | 이수연_ 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저도 20대 초반인데, 젊은 세대들은 특히 같이 하는 경험이 없었는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니 것, 내 것이 아닌 우리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고 말한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협동조합은 사람을 철들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 ‘공존공생’에 출연한 초대손님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쓴 글입니다.

“ ‘잘 놀고 잘 살자’ 를 목표로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다중이해자협동조합입니다. ‘문화 몽타주 세미나’, ‘예술 노마드 인 수원’, ‘예술, 동네와 콜라보하다’, ‘오가닉 아트 페스티벌’ 을 진행했습니다.”

이웃문화협동조합(이문협) 이수아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몽타주, 노마드, 콜라보, 오가닉... 알 듯 말 듯한 말들로 정신이 없다. 대체 이런 게 무슨 사업이고, 돈은 벌 수 있는 것인지, 소수의 특별한 예술가 집단의 만족을 넘어서는 일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이런 의문을 안고 이문협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수원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문협은 2010년 수원시민창안대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대회에 참가했던 ‘청년동지’는 ‘Let's Fly! 청년 재능 베품 시장’이라는 프로젝트



를 제안했다. 지역에 재능을 나눠줄 수 있는 청년도 많고,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도 많은데 이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을 엮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서로 재능을 나누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멘토와 멘티가 되어주기도 하고, 지역 사회에 좋은 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젊은 예술가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데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었다. 그 결과 청년동지는 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역의 재능을 연결시켜 문화를 만들자.

2011년 청년동지는 ‘이웃’이라는 이름의 문화기획사로 변신한다. 이웃이라는 이름을 정한 데에는 이웃과의 교류 속에서 문화를 나눈다는 뜻도 있었고, 경험(Experience), 작업(Work), 즐거운 놀이(fUn), 문화(culTure)를 모아서 경험과 작업이 즐거운 놀이가 되어 하나의 문화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의 EWUT이기도 하다. 문화기획사 이웃은 열린세미나, 골방영화제, 재능벼룩시장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이 중에서 청년동지 때부터 핵심 아이디어였던 재능벼룩시장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다. 수원에는 ‘크로키’라는 이름의 술집이 있는데, 알고보니 술집 사장님이 크로키 화가셨던 것이다. 크로키를 배우고 싶어하는 시민들과 지역의 숨겨진 크로키 화가를 연결해주는 일이 바로 재능벼룩시장이다. 또한 수원에는 경기대학교가 있는데, 여기 미대 학생들이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미술관 관람을 하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재능벼룩시장을 통해 열렸다. 우리 동네 누군가가 갖고 있는 사소한 재능이 기존의 문화센터가 부럽지 않은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 이웃은 이런 활동들을 놀이생협이라는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수원시 사회적기업창업경진대회에 나가게도 되었고, 여기서도 최우수상을 탔다.

이후 이웃은 주식회사로 변신하여 수원 지동에 이웃센터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시도했다. 수원에는 화성 행궁(왕이 궁궐을 벗어나 머무는 곳)이 있다. 행궁 안쪽의 도시는 구도심인데 예전에 비해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상권도 침체되어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오랜 시간 한 동네에서 살아와 서로를 잘 아는 주민들이 있다. 이웃은 이곳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만들고자 했다. 벽화그리기에서부터 화성 행궁 안에서 여름밤에 벌어진 댄스파티까지 동네를 발랄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또한 지역 대학생들이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그것을 책으로 내고, 관광코스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지동마실 가는 길’이라는 책자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로 60대 이상의 고령이었던 주민들은 젊은 청년들이 동네 들어와서 시끄럽고 낯선 행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대체 저 아이들은 뭐하는 아이들이야?” 하는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지나가셨다고 한다. 그래서 고령의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웃공방과 핑퐁음악다방을 만들었다. 핑퐁음악다방은 탁구도 치고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은퇴 후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리스타 교실을 열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재취업에 나서기도 했고, 무엇보다 동네에 들어온 젊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었다. 그리고 동네에 안착한지 1년여가 지난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청년들을 손님이 아니라 같은 주민으로 바라보고 있다.

협동조합은 사람을 철들게 한다

이렇게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속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면서 ‘생협 놀이터’ 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일을 계속해왔다. 그러다가 2012년 하반기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정관팀, 사업팀, 회계팀으로 나뉘어서 차근차근 협동조합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2013년 4월 창립총회를 열어 정식으로 협동조합이 되었다. 현재 조합원은 69명이고, 청년들이 중심 활동세력이기는 하지만 20대부터 7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조합원의 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날에는 함께 놀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주식회사로 있을 때와 협동조합이 되었을 때의 차이점이 크냐고 물었다. 문화기획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굳이 협동조합의 형태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수아 사무국장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매우 차이점이 크다. 조합원들이 공동 책임을 진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 단순히 1인 1표의 틀이 있다는 점을 넘어서서, 협동조합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우리 조직의 위기는 조직의 사람들이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저도 20대 초반인데, 젊은 세대들은 특히 같이 하는 경험이 없었는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네 것, 내 것이 아닌 우리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고 말한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협동조합은 사람을 철들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문협은 올해에만 ‘문화 몽타주 세미나’, ‘예술 노마드 인 수원’, ‘예술, 동네와 콜라보하다’, ‘오가닉 아트 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벌였다. 사업들은 신진 예술가들에게 공연과 전시의 장을 제공하기도 하고,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예술이나 좋은 인문학 강연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가지고 직접 참가하기도 한다. 한 예로 수원의 농생명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키운 국화를 들고 나와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단 두 명의 상근자를 둔 협동조합이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냐고 물었더니, “조합원들의 참여 덕분에 가능하다.” 고 한다. 이어서 이런 문화 사업들로 수익을 내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는 답이다. 자체수익 외에도



사업에 따라 조합원들이 특별 출자금을 걷기도 하고, 소셜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그간 지역에서 벌인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자체나 문화관련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문화, 지역, 그리고 청년이라는 화두를 잡고 활동할 예정

그렇다면 앞으로 이문협은 어떤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인지 미래 전망에 대해 물었다. 그랬더니 “사실 아직 이문협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다듬어가는 중”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문화와 지역을 주제로 하여 “문화란 고고한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것이든 문화가 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전에 주식회사와 달리 69명의 조합원이 함께하는 협동조합으로 변모한 후 우리 조합원들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다듬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사업에 집중해야 할지, 이제 막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체계를 어떻게 잡아나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려고 한다. 일단은 “지역 내에서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광장의 역할”을 할 것이며, “돈이 없어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화폐를 통한 재능나눔”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한 편으로는 ‘청년’이라는 화두 역시 놓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한다. 이문협의 첫 시작이 청년들이기도 했고, 지금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수아 사무국장은 “이문협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목표, 이문협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꿈꾼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청년들을 철들게 하고, 청년들이 지역의 다른 세대와 교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문협과 청년, 나아가 협동조합과 청년은 중요한 관계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지역, 문화, 청년. 이문협이 붙잡고 있는 이 세 가지 화두는 모두 우리사회에서 비주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상이 돌보지 않았던 것들의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 속에서 철들어가는 청년들을 응원한다. ✨